

**“장애인 통합교육·주거자립 보장” 발달장애 부모 오체투지**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권, 통합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산구 제설·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

피해 사례 분석 통해 대응 체계 점검·폭설대비 만전

광산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으로 지정, 제설 작업 준비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과거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제설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선다.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와 고립을 막고 보행로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인다.

또 강설과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민안전과와 건설과를 중심으로 제설대비 상황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상특보 예보 즉시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교차로와

같은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조치에 나선다.

이면도로와 보행자도로에 대한 제설 대책도 강화한다. 소형열화갑 13대, 다목적 소형 제설차량 6대 등을 투입해 시민밀착형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또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한다.

아울러 폭설·한파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동절기 난방비 지원, 건강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목포 찜질방서 빈대 10여 마리 발견

질병청 추가 분석 의뢰…개인 방역 철저 당부

목포시가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개 확인되면서 개인방역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에 찜질방에서 빈대 10여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빈대는 크기가 1~6mm의 납작한 모양으로 보통 짙은 매트리스, 커튼, 벽지 틈새, 액자 뒷면, 의자나 소파 틈, 테이블 아래, 전기 콘센트 등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 숨어 살다가 새벽시간에 나와서 잠자기고 있는 사람에게서 흡혈활동을 시작한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렸을 경우 약 1~3일 이후부터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목포시는 집에 빈대가 의심되면

전문 방역업체의 진단을 권고했다. 보통 성충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알이나 약충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하고 빈대가 성충이 되기까지 2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발견을 통한 정확한 방역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전문방역용 긴급살충제를 승인했으나 이미저도 보조적 수단이며, 스팀청소기로 고열을 가하거나 직접 찾아서 퇴치하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최우선시된다.

한편 시는 이번에 수집된 빈대 약충과 탈피각에 대해 질병관리청 추가 분석 의뢰하고, 이를 통해 빈대 종류와 살충제 감수성을 실험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2023 지속가능관광 국제포럼 in 광주

지속가능관광 통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전략마련



동구는 오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2023 지속가능관광 국제포럼 in 광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

회장 임택)와 광주 동구·서구·남구·광산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지속가능관광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상임회장인 임택 구청장과 공청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인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지속가능관광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일본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사례와 관계 인구 증대에 대해 일본 히로시마현 이리에 요시노리 진세키고원 군수와 일본 도카이대학교 최재현 관광학부 교수의 견해를 심도 있게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사건 브로커 연루 업체들 전남 지자체 19곳 납품

브로커 업체 7곳, 최근 5년 8개월간 계약 300여 건 체결…검찰 칼끝 주목

형사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업체들이 전남 지자체 19곳으로부터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공공사 수주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가 단체장 사건에 관여한 대가로 이권을 챙겼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운영하는 7개 업체의 관급

공사와 자재 납품 실적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남 시군 22곳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로커 성씨 관련 7개 업체의 수주·납품 실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성씨 관련 7개 업체의 업종은 목재·냉난방기 납품, 건설·건축 등이다.

이 업체들은 최근 5년 8개월간 전남 지자체 22곳 중 19곳과 300여 건

이 넘는 각종 계약(200억 이상 규모)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승인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행진 협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단체장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하거나 인맥을 활용,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각종 공사를 수수하거나 물품을 납품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던 시기에 이뤄진 계약의 대가성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단체장 등과 결탁한 뒤 사업을 따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와 관련 모 지자체 회계 담당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로 (성씨 관련 업체와) 계약이 이뤄져 특혜를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시스

북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선정…1억4천만 원 확보

2억8천만 원 투입…14개 복지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지원

북구가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폭염,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에 효율적인 자체 대응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서 ‘사회복지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이 선정됐다.

본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다수 밀집돼있는 북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열 반사 및 차단 기능이 있어 실내 온도 저감효과가 뛰어난 차열 페인트 시공을 지원하여 복지시설 주 이용자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확보분과 지방비 매칭분을 더해 총 2억8000만 원이며 북구는 오는 12월 중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내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사업효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는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을 통

해 복지시설 재실 환경 개선은 물론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불평등을 겪는 소외계층 보호 지원사업 다양화와 내실 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유아 폭염쉼터’ 조성 등 총 사업비 2억5000만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교육청, 성공적 공약 실천 위해 시민배심원단 위촉

1차 회의 개최…내달 11일까지 조정·이행평가 점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직선 4기 공약이행사항 점검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평가배심원단 5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약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 중 하 나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앞으로 활동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책환경 변화, 재정적 여건 변동 등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배심원단 위촉식 ▲매니페스토 기초 교육 ▲분임구성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공약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 중 하나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앞으로 활동을 논의

했다. 위촉된 배심원단은 직접 공약사업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 선발된 시민배심원단은 광주시민을 대표해 공약 조정과 이행평가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모집과정에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한 후보군을 추출했다. 이어 전화 면접을 거쳐 50명의 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했다.

시민평가배심원단은 오는 12월 4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 담당자들에게 직접 안전 설명을 듣고 심층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3차 회의인 12월 11일에는 최종적으로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와 개선 방안 권고 등의 활동을 진행한 다. /조선주 기자

2024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서 ‘전남 작은학교 실제 운영’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내년 5월29일~6월2일

세계 미래 교육의 모델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할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제가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결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는 디지털로 전환된 작은학교 교실, 민관산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학교급별로 진행되고 있는 도 서설, 프로젝트 수업 공간, 놀이공간 수업 모형도 박람회장에서 시연되며 각 지역·세계의 교실과 온라인 연결해 인공지능(AI)활용 수업, 과학수업, 로봇활용 수업 등을 진행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과 세계의 교육 환경을 공유하는 콘퍼런스도 펼쳐진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5일동안 매일

2시간씩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지역을 강하게 만드는 교육’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펼친다.

박람회 주요 참여 국가들도 각 나라의 교육여건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도 추진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느낄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등도 전시된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관, 기업이 조성하는 에듀테크밸리, 25개국의 교육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교육관이 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페스티벌, 케이팝 공연, 지역 연계 공연 등이 박람회 기간동안 선보이며 이중언어 대회, 해커톤, 로봇대회 등이 잇따라 열린다. /김 호 기자

광주경총, 광주 군·민간공향 “무안공향으로 통합 이전하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8일 광주 군·민간공향을 무안국제공향으로 통합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무안군이 참여하는 공향통합이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무안군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단체도 무안국제공향으로 통합 이전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안군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간공향 통합 이전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광주·전남은 이미 나주 공동혁신도시 유치, 빛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바 있다. 광주 군·민간공향도 무안국제공향 통합 이전이라는 제2의 상생발전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형안 기자